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㉔ 동국대를 내려오며

미학으로 허무를 하산하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시기다. 우리의 산책도 1년을 걸려 남산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 겨우 도착했다. 이제 하산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하산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예정이다.

동국대 중앙도서관 뒤에 자리한 신공학관은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가 터벅터벅 걸어왔던 그 가파른 언덕길을 30초도 채 안 돼서 내려갈 수 있다. 동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부터 올라온 긴 시간이 한 번에 충무로 골목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는 셈이다.

우리가 남산을 일 년 동안 산책해 온 일을 돌이켜 보면 동국대라는 불교의 세계로 처음 올랐을 때의 기쁨과 불교의 세계를 탐방했던 정열, 그리고 배운 바 소회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막상 글로 옮기려니,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을 얻지는 못한 듯한 안타까움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노스롭 프라이는 〈비평의 해부〉에서 장르 문학을 계절에 빗대어 설명하며, 봄을 소생하는 희극, 여름을 성장하는 정극, 가을을 떨어지는 비극, 겨울을 풍자극으로 비유했다. 이에 착안해 돌이켜 보면, 비록 계절의 변화를 잘 전달하지 못했지만 동국대가 자리한 남산은 봄에는 벚꽃 옷을, 여름에는 녹음 옷을, 가을에는 단풍 옷을 입고 변화해 왔다.

이제 겨울 차례로 마무리할 때다. 기껏 올라왔지만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것, 그것도 1년을 걸려 올라왔던 길을 30초도 채 안 되어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겨울을 풍자의 시대로 본 것이 참으로 적절하게 느껴진다. 소생하는 봄에 피는 꽃처럼 만발하듯 세웠던 목표들, 여름이 지나며 아지랑이처럼 사라진 목표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붙잡듯 이것만이라도 해내야지 다짐했던 목표들, 이제 겨울이 와서 하나도 이룬 목표가 없나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은 이맘때쯤 한껏 풀어진 입시생과 고시생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이러한 회의감을 극복하는 것은 풍자밖에 없다.

〈미륵하생경〉은 〈미륵상생경〉, 〈미륵성불경〉과 함께 '미륵삼부경'이라고 불린다. 〈미륵하생경〉에 따르면 미륵보살이 지금으로부터 56억7천만 년 뒤 성불하여 미륵부처님이 되고, 용화수 아래에서 세 번 설법하여 모든 중생을 구원하신다. 그 스케일부터가 남다른데,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을 할 때마다 90억의 아라한이 생겨났다고 한다.

필자가 이 내용을 처음 읽었을 때 느낀 점은



동국대 신공학관 전경.
사진 출처=동국대 남산학사 홈페이지

애써 힘쓴 바 허무한 일이어도
분노 대신 미학으로 웃음 짓고
그 위에 부처님 가르침 세워야

일종의 부조리극이 주는 골계미였다. 사바세계의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설법에는 다섯 명의 수행자만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구원겁 이후에는 설법 한 번마다 90억이나 되는 중생이 깨닫는다니, 비례미가 파격적으로 해체된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라한이 되는 길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 시간과 점(漸), 돈(頓)에 대해 사색해 왔다. 본래 아라한에 이르는 길은 여러 생을 돌고 돌아 점차적·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정각원 계단을 오르며 계단 하나하나의 법위(法位)를 곱씹다 보면, 그 억겁의 세월이 지닌 무게감이 우리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런데 미륵부처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아라한이 되지 않는가. 점교의 바위를 짊어진 시시포스의 일을 감당하지 않은 이들마저 말이다. 기껏 올라오는 데는 1년이 걸렸지만 내려가는 데는 30초, 말 그대로 희극 아닌가.

우리가 남산을 1년을 들여 올라왔지만 30초도 안 되어 하산하게 되는 상황, 다시 말해 미륵보살께서 도솔천으로 상생하여 성불하기까지 56억7천만 년이 걸렸는데, 하생하여 행하는 설법은 고작 세 번으로 끝나 버리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해 찾은 답이 사실은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 즉, 겨울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희극은 희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겨울의 마음은 풍자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 봄이라는 소생의 계절인 봄으로 나아갈 수 있다.

풍자의 웃음이 아니라면 남는 것은 분노뿐이다.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어떤 이들은 노력도 없이 내가 성취한 것을 단번에 성취하는가', 혹은 '내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일이 왜 모래성처럼 부서지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성질만 부릴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이 당장의 스트레스를 풀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노 위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스스로를 더 깊은 분노로 침식시키는 늪 위에는 그 어떤 생산적인 건물도 지을 수 없다. 미래를 발목 잡는 것이 바로 분노다.

반대로 웃음은 지수화풍의 사대(四大)로 비유하자면 풍(風), 즉 바람이다. 한 번 너털웃음을 지어 보면 알 수 있듯, 웃음이란 깊게 내뱉는 한숨의 바람일 뿐이다.

불교의 우주관에서 수미산을 떠받치는 기초 역시 풍계다.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는 순간에도 한숨 내뱉는 웃음으로 분노의 늪을 말려 버려야 한다.

자신이 세울 수미산을 분노라는 늪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비록 지금까지 해 온 일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위에 무언가를 더 지어 올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시행착오다. 반대로 그 의미 없음에 허우적거리며, 다시 말해 분노 속에서 웃음 한 번 지을 여유조차 없다면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미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한 번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학문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스스로를 특별하다 여기지만 사실은 인과에 묶인 오온·십이처·십팔계의 더미일 뿐임을 일러 주더라도, 허무주의에 빠지기보다는 "아! 나라는 게 정말로 보잘 것 없구나"라고 한숨 내뱉으며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의미 없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배를 타고 피안으로 건너가야 한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서둘러 그 다음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겨울이라는 계절, 1년 동안 허비한 시간에 분노하지 말고 너털웃음 한 번 지은 뒤 빨리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를 하길 바란다.

1년 동안 불교미학이라는 특수한 주제에 귀한 연재 면을 내어 주신 현대불교신문, 누구보다 이 재미없는 원고를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혹 지금까지 연재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한 번 웃음 짓고 넘어가 주시길, 한마디로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끝〉

〈동국대 박사〉

삼승을 닦아도 유정 건지지 않으면 대승 아니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㊽ 삼승 공신의 요(三乘共信의 要)

이번 이야기는 삼승(三乘: 대승·성문승·독각승)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대승에 머물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유의행품', 즉 의지함이 있는 행이 여기에서 모두 끝나며, 참회 멸죄의 중요성 및 참회의 원력과 열 가지 법의 공덕 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중생은 성질이 포악하고 말씨가 거칠며, 어리석으면서 총명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생과 삿된 소견을 끊지 않는다. 남이 이익과 공경과 칭찬을 받으면 질투하고, 항상 자기의 이익, 공경, 칭찬을 추구하여 쉬지 않으며 … 자비심과 부끄러움이 없어 남을 괴롭히며, 모든 복밭의 우열을 가리기 좋아하느니라. 또 자신은 대승의 모든 행과 경계에 대하여 배우지도 닦지도 않고, 깨치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대승이다'라고 자칭한다. 그리고 다른 이를 권유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여, 명예와 이익을 구함으로써 살아가느니라. … 이같이 거짓된 중생은 하천한 사람 몸 얻기도 어려워 좋은 세계, 즉 이승의 열반도 잃겠거늘 하물며 대승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나는 말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대승이라 자칭하지만, 실은 삼승 중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대승이란 청정한 율의를 받들어 지니고 미묘한 선행을 닦고 행하며 … 자비를 일체 유정들에게 행하여 이익과 안락을 짓고 갖가지 액난과 생사의 고통에서 해탈시키며 자신의 안락을 돌보지 않고 유정의 안락만을 구하기에, 이런 이를 대승에 머무는 이라 하느니라.

성문승이란 모든 중생이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바른 생각에 머물러 선정을 즐기며 오욕에 집착하지 않고, 팔법(八法: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므로 팔풍이라고도 함. 이익, 손실, 칭찬, 비난, 헐뜯음, 명예, 즐거움, 괴로움)에 물들지 않고 한결같이 모든 성인의 종자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갖춘 이를 성문승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독각승이란 어떤 이인가? 이른바 중생이 위에서 말한 성문승의 공덕을 모두 갖추고, 오취온[오온五蘊: 색·수·상·행·식]에 대하여 무상관 내지 생멸관을 가져 그곳에 편히 머물며, 연기법에 대해 모든 것은 다 멸하는 법이라고 관찰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춘 이를 독각승이라 하나, 이런 중생은 대승의 그릇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법을 잘 관찰하고 선정을 닦고 모든 온(5온)·처(12처)·계(18계)를 잘 관찰하여 이 십행의 유의륜(의지함이 있는 행법)을 갖추면, 훌륭한 승(乘)의 그릇을 이루어 미혹의 바다를 건너리라. 삼승·이승을 닦아도 자기만이 번뇌와 고통에서 해탈하기를 구하고 유정을 건지지 않고 습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모두 대승의 그릇이 아니다. … 이승을 비방하여 계율의 행을 다 버리고 구족계를 받고는 대승이라 자칭하여 나의 법 파괴하고 중생을 미혹하게 하나니, 때문에 사람 몸 받기 어려우니라. 나의 법을 따르는 성현을 괴롭히고 가사 입은 이를 꾸짖고 벌을 주고 욕하면서 가사와 바리때 등을 빼앗나니 인간과 천상세계의 길을 잃으리라. …"

2025년 을사년 한 해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과 〈지장십륜경〉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장신앙'은 신라 진평왕(22, 600년) 대에 원광 스님이 '점찰보'라는 민중을 위한 수행법(점찰행법)과 경제적 기구(계 조직)로 들여온 것이며, 그 근원은 〈지장삼부경〉 중 하나인 〈점찰선악업보경〉을 응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원광 법사는 589년 중국의 진나라에 들어가는 데, 바로 이해가 수나라 통일의 해이기도 하며 그 후 10여 년을 중국에서 삼계교(지장교)의 경황을 살피게 됩니다. 그 후 삼계교의 탄압을 직면하고 돌아온 원광 법사가 '삼계교'라는 말 이외에 '지장'이라는 말도 못 꺼낸 것은, 모두 삼계교의 탄압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교학계에서는 아직도 삼계교나 지장 사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두운 편입니다.

어쨌든 〈지장십륜경〉의 뒤이은 이야기는 '참회의 중요성'과 '열 가지 착한 업의 공덕' 등을 재삼 강조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의 이익과 그 복업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은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실 때 모인 이에게 가르침을 설하시고 '일체 법에 자재한 전명광의지(轉光明依止)의 순인(順忍)과 아라한을 얻었다'라고 부촉하고 계십니다.

현대불교신문 독자 여러분 모두 내년에도 〈지장십륜경〉 법력의 힘으로, 건강과 원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간곡하게 두 손 모읍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

〈송림사 주지〉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